전략조사 보고서

홍콩기업의 중국투자 동향과 시사점

2001. 12

KOTRA
홍콩한국무역관

차 례

1. 중국의 WTO 가입과 홍콩기업 1

1) 중국시장 변화의 방향 3

2) 업종별 시장 전망 6

3) 중국의 WTO 가입과 홍콩의 역할 9

2. 중국진출 홍콩기업 15

1) 홍콩의 중국투자 동향 17

2) 중국진출 홍콩기업 설문조사 18

3. 홍콩진출 중국기업 33

1) 중국의 홍콩투자 동향 35

2) 홍콩진출 중국기업 설문조사 36

4. 한국기업에의 시사점 43

1. 중국의 WTO 가입과 홍콩기업

1. 중국의 WTO 가입과 홍콩기업

1) 중국시장 변화의 방향

□ 시장개방 일정

중국이 12월 11일을 기해 WTO 회원국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관세인하 등 무역장벽 제거와 서비스업 개방조치가 본격 시작됐다. 중국이 밝힌 개방 일정표에 따르면, 공산품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율은 14.8%에서 2005년까지 8.9%로 인하되고 수입쿼터도 5년내 없어진다. 외자기업의 수출입권 전면 부여와 유통업 개방조치도 앞으로 3년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품목별 관세인하 일정

대 상	WTO 가입이전	2005년
자동차(부품)	80%(18~45%)	25%(10%)
석유화학	9~16%	6.5%(2008년)
약품	22%	10%
식품	39%	15%(2004년)
의류	25%	10%
정보통신기기	13.5%	0%

중국은 WTO 가입전에 품목별로 쿼터제한을 받아왔을때도 양호한 수출실적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자동차, 통신, 석유화학 등 분야의 경쟁열위에도 불구하고 가입후 방직·의류, 전기·전자제품을 포함한 주요 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가 유난히 낮은 국가다. 세계은행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저소득국가의 서비스업 평균 GDP 기여도는 44%에 달했으나 北京, 上海, 天津 등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지역조차 서비스업 비중은 46~58%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주요 제품 시장전망

구 분	세계시장점유율(%)			수출증가율(%)	
	1995	2005 (미가입)	2005 (가입후)	미가입	가입후
방직품	8.4	8.8	10.6	45	107
의류	19.61	18.5	47.1	45	375
목재·제지	2.2	2.6	3.0	63	97
석유화학	2.6	3.1	3.4	65	91
금속제품	3.4	5.5	6.5	134	190
자동차	0.1	0.7	2.2	648	2,523
전자제품	5.0	7.8	9.8	126	195
기타공업제품	5.5	8.1	9.9	114	176

자료원 : 세계은행, Trade Liberalization in Chinas Assession to the WTO

이는 1970년대말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됐지만 1992년 중국정부가 서비스업 중 일부를 시범적으로 투자대상에 포함시키기 전까지 개방을 잠정 유보했기 때문이다.

사실 기존 외국인투자 중 30%가 서비스업 투자였지만 이는 대부분 부동산 분야에 국한되었다. 서비스업 유형별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더라도 시범성격이 짙어 업종별 외자기업수나 사무소 위치, 영업범위 등에 대해 제한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WTO 가입후 중국은 통신서비스업(인터넷 등)을 시발로 금융, 법률, 유통, 금융, 관광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

구 분	1980	1990	1999
중 국	21%	31%	33%
저소득국가	30%	40%	44%
중등국가	46%	47%	54%
세계평균	55%	59%	63%

자료원: 세계은행, 200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중국의 WTO 가입은 각국별로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를 가져오는 것 이외에도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자기업들이 직면했던 수입제한 등 기존의 장애요인들이 대부분 제거된다는데서 긍정적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한국, 홍콩 등의 투자기업중 상당수는 중국을 제 3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WTO 회원국들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게 된다는 점은 이들 투자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선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도 중국에 최혜국대우를 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최혜국대우 심사가 해마다 있어 왔기 때문에 중국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수출활동에 불안요인이 되어왔다.

중국이 반덤핑이나 기타 무역제재조치를 받게 될 경우 WTO를 통한 분쟁해결 모색이 가능해진 점도 현지 투자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이다.

□ 아시아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세계은행은 올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중국의 WTO 가입으로 2005년까지 세계적으로 560억 달러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를 창출되며 이 가운데 286억 달러는 중국의 몫이 되고 북미, 유럽, 일본 등 선진시장이 197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4국은 1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반면, 기타 개도국은 수익보다는 중국과의 경쟁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각국에 근무하고 있는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중국, 한국, 홍콩 등지에 근무하고 있는 주재원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이 자사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한 반면, 말레이지아, 베트남 등 여타 동남아국가들은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이전에 누려왔던 상대적 메리트가 상실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각국 주재원들의 전망

국 가	유 리	불 리
중 국	100%	0%
일 본	86%	14%
홍 콩	82%	18%
싱가폴	40%	20%
한 국	92%	8%

국 가	유 리	불 리
대 만	100%	0%
인도네시아	67%	33%
말레이지아	9%	46%
필리핀	31%	62%
베트남	6%	83%
인 도	0%	67%

자료원 : Asian Intelligence, 2001.7월

2) 업종별 시장 전망

□ 방직 · 의류업

방직 · 의류업은 중국이 WTO 특수를 가장 기대하는 분야다. 중국은 WTO 가입후 <방직품 · 의류협정(ATC)>에 따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존 쿼터제한을 해제받게 된다.

물론, 중국도 방직 · 의류 관세를 현행 25.4%에서 단계적으로 11.7%까지 하향 조정할 계획이지만 중국내 가공무역업체들은 앞으로 원자재, 방직원료 등의 수입에 따른 생산코스트 절감과 제 3국 수출 증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세계은행은 2005년 중국산 의류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4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2005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중국산 방직.의류 수입의 급증할 경우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게 된다. WTO 회원국 역시 최혜국 대우를 받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반덤핑 또는 쿼터제한을 할 수 있어, 중국산 제품의 급격한 수출증가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과 함께 중국 이외에 캄보디아, 미얀마 등 신흥 생산거점으로 생산기지를 분산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중국 자체시장의 경우 기존에 중국을 제3국 수출의 가공기지로 주로 활용해왔던 대부분의 투자기업은 저가품은 중국기업 제품과의 가격경쟁에 뒤지고 중고가품은 외국 수입상품에 뒤져, 브랜드 제품을 진출시킨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향후 상당기간동안 내수시장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 부품업

중국은 2005년까지 완성차 수입관세를 현행 70-80%에서 25%로 대폭 낮추고, 자동차 부품 관세도 2006년까지 18-45%에서 10%로 낮출 계획으로 있어 자동차 관련제품의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자동차할부금융이 실시되면 소비자의 자동차구입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2000년말 기준 중국의 민간 자동차 등록대수는 1,600만대를 초과해 과거 10년간 연평균 11.3% 증가세를 보였고, WTO 가입에 따라 관세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자동차 구입은 더욱 늘어나 이와 관련된 정비업, 부품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자동차 산업생산 중 30%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70%는 부품교체나 정비 등 후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완성차시장 못지않게 자동차부품.정비업도 시장전망이 밝다.

현재 중국에는 100여개사가 넘는 자동차 조립업체와 1,500여개의 부품업체들이 난립해있으며, 이중 13개 대형 조립업체가 전체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대다수 자동차 관련업체들이 영세한 규모로 낙후된 기술과 낮은 R&D 투자비중, 불균일한 품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별로 자체 하부 부품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급되는 부품의 품질이 열악하더라도 가격은 오히려 높은 경우가 많다.

제조업체별 부품업체 제휴관계가 밀접해 외국 부품업체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해외로부터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부품 조달은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품시장은 엔진 등 핵심부품보다는 카오디오나 전선장비, 소형모터 등 주변부품의 시장진입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업과는 달리 일정 규격에만 도달하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진입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 전자 · 통신업

중국은 <정보통신기술협정(ITA)> 가입으로 2003년부터 정보통신 제품 중 2/3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해야 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2005년 이전에 모두 0 세율화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WTO 가입 이전부터 관련품목 수입관세 인하 및 쿼터 해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통신 및 인터넷시장 개방에 따라 통신비 인하와 통신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며, 관련 정보통신설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의 통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고정밀 부품이나 첨단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완성품 수요증가 못지않게 부품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

전자·통신 부품류는 지역별 산업집적도의 강화로 廣東, 天津, 福建, 長江삼각주 등지로 수요가 구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중국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별, 용도별로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완구업

중국은 WTO 가입 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구류 수입관세를 철폐한다. 수입관세 인하의 시간표는 아래와 같다.

중국의 완구류 관세율 인하계획

세번	품 목	현행	협정세율			
			2002	2003	2004	2005
95010000-95039000	유아용차, 인형 기타완구.모형	10.0	10.5	7.0	3.5	0.0
95041000	비디오게임기	35.0	17.5	11.0	5.8	0.0
95042000	당구용품	25.0	12.5	8.3	4.2	0.0
95043010	기타게임용구	35.0	17.5	11.7	5.8	0.0
95044000	카드	18.0	10.5	7.0	3.5	0.0
95049010	비디오게임부품	35.0	17.5	11.7	5.8	0.0
95049090	기타게임부품	21.0	10.5	7.0	3.5	0.0
95051000	성탄용품	18.0	10.5	7.0	3.5	0.0
95059000	기타오락용품	18.0	10.5	7.0	3.5	0.0

자료원 :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행세율), 中美協定(협정세율)

완구류 수입관세 인하는 각종 완구, 게임제품 및 부품.원자재의 수입을 증가시켜, 생산코스트 절감은 물론 중국 내수시장 확보에도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구류는 주로 도매상가 이외에 완구전문점, 백화점 등 쇼핑몰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유통시장 확대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국의 WTO 가입과 홍콩의 역할

홍콩은 중국의 WTO 가입을 지난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홍콩내 생산설비는 중국으로 이전하고 홍콩은 서비스산업 위주로 특화 발전했던 것과 같이 산업구조 고도화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

홍콩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배경의 동질성으로 인해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대외창구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홍콩은 무역과 물류거점으로서 珠江 삼각주 일대 홍콩자본이 설립한 생산기지를 배후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무역업만 하더라도 홍콩의 전체 GDP 차지비중이 18%, 고용인원 50만명이며, 물류업도 GDP 비중 5%, 고용인원 14만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수출입 중 40%는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역외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홍콩기업의 실적이 제외된 수치로, 무역활동 중 상당부분은 홍콩기업의 중국내 생산기지의 수출입업무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무역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홍콩의 대중국 교역현황

(단위 : US$ 백만)

구 분	2000		2001(1~9월)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총수출	69,613	+20.8	52,827	+3.7
자체수출	6,943	+7.4	4,799	-7.9
재수출	62,670	+22.5	48,028	+5.0
총수입	91,665	+17.7	65,279	-3.2
중국산재수출	108,912	+18.0	77,315	-2.6
총교역	161,278	+19.0	118,106	-0.2

자료원 : 홍콩통계처

홍콩기업 중 상당수는 외국기업의 에이전트로서 중국에 외국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을 개척하려는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이 홍콩에 지역본부를 세워 중국시장 마케팅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홍콩에 설립된 외국 다국적기업 본부 및 사무소 3,200여개사 중 반수 이상이 마케팅에 종사하고 있고 그중 90% 이상이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한편, 홍콩이 처리하고 있는 수출화물 중 64%는 중국산 제품이며, 중국의 주요 해외바이어들 중 76%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홍콩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과 외국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중국의 자체 교역량이 늘어남을 감안한다면,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홍콩의 역할은 도전과 기회가 병존하는 측면이 있다.

중개역할 강화

홍콩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급선 관리 및 마케팅 경험이 외국기업보다 앞서고,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이 중국기업보다 많기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초기 중국의 대외교역에서 홍콩이 담당하는 역할은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전체수출 중 廣東省의 수출(2000년 3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WTO 가입에 따른 교역증가는 廣東省을 주요 영업 근거지로 하고 있는 홍콩기업들의 역할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홍콩이 수출하는 제품의 60% 이상은 중국산 제품으로 대외무역 경험이 일천한 중국기업을 대신해 홍콩이 중개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 상품 교역규모 확대는 물론 서비스 시장 신규 개방은 홍콩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 참여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수입 원자재, 설비 관세의 인하는 중국진출기업수가 가장 많은 홍콩의 가공무역 종사업체들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입원자재, 설비 의존율은 평균 67%에 달해 관세인하는 가격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내수시장 진출 확대

중국에 진출한 홍콩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7%의 기업이 수출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었고 내수 영업비중은 21%에 불과해 내수 영업비중이 아직은 크기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기업이 내수 영업이 많지 않은 원인으로는 자금결제의 어려움, 정부정책의 투명도가 낮다는 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점들이 꼽혔다. 또한 중국의 유통구조가 폐쇄적으로 현지 중간 유통업체에 의한 독점현상으로 인해 시장 신규진입이 쉽지 않은 점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비록 중국 민간기업과 외자기업이 제한적으로 유통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중국 내수시장은 여전히 국유, 집체기업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4월 외자기업 관련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외자기업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내수비율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출/내수 비율을 관리감독하는 중국 행정당국의 관련규정이 까다로워 내수시장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 내수시장 진입여건이 점차 개선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생산기지로서의 활용 이외에 내수시장 공략은 홍콩기업에게도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최우선 경영목표중 내수시장 진출 을 꼽은 홍콩기업이 47%에 달했다는 사실은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물류서비스 참여

서비스업이 홍콩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 이상인데 반해 중국은 3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금융, 물류, 법률서비스 등에 특화된 홍콩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 참여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물류는 중국기업의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중 차지하는 비중이 90%, 생산코스트 중 40%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화가 시급한 분야로, 해운항만 화물처리, 물류단지 운영 등 홍콩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물류부문 참여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 물류기지로서의 홍콩

홍콩 자체의 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은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내 각 항구별 컨테이너 처리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콩은 중국 남부지역 항구의 발전으로 컨테이너 처리량이 늘지 않고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홍콩정부는 홍콩항을 이용하는 화물량이 2010년까지 매년 4~5%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홍콩이 처리하고 있는 화물중 일부를 광동성 남부 鹽田港, 珠海港 등이 대체하고 있어, 물동량 제로 성장이 홍콩의 대외교역량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내 주요 항구별 컨테이너 처리실적

항 구	처리량(만 TEU)	증감율(%)	기준월
홍 콩	1,342.2	0.0	9월
상하이(上海)	515.6	13.0	10월
션젼(深圳)	417.0	27.0	10월
칭다오(青島)	176.3	27.6	8월
티엔진(天津)	130.6	13.8	8월
닝뽀(寧波)	99	33.0	10월

주 :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

자료원 : 중국·홍콩정부 통계

중국과 대만간 직접교류 확대추세도 변수 중 하나다. 양안간 직교류가 확대되면 그동안 홍콩을 경유했던 중-대만간 교역량도 감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세계 4대 컨테이너처리항인 대만 高雄港은 양안간 교류의 중계기지 역할뿐만 아니라 華南지역을 제외한 중국의 華東, 華北지역 수출입화물의 중계기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 중국 및 아시아 지역본부로서의 홍콩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의 중국진입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홍콩을 중국 및 아시아지역본부로 활용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수도 계속 늘고 있다. 홍콩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 5월말까지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본부 및 지역사무소는 3,237개사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 특히 아시아지역본부가 중국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90%에 달해 홍콩을 기반으로 한 사업본부는 주로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년도 홍콩주재 지역본부 · 지역사무소 증가추세(개사)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지역본부 · 사무소	2,514	2,449	2,490	3,001	3,237

자료원 : 홍콩정부

최근 상하이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업무를 총괄하는 지역을 홍콩에서 上海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 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다만, 홍콩대학이 홍콩 및 상해지역 다국적기업 매니저(Manager)급 관리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홍콩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상하이보다 많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국적기업들의 중국진출은 단순히 홍콩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체지를 마련하는 의미가 아니라 권역별 진출계획에 따라 지역본부를 추가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홍콩과 상하이의 비교우위 (홍콩대학 설문조사)

구 분	홍콩소재매니저		상해소재매니저	
	홍콩	상해	홍콩	상해
주요시장접근성	4.6	3.8	4.1	4.5
관리층수준	4.6	2.9	4.3	3.5
금융서비스	4.7	2.8	4.6	3.3
사회간접시설	4.6	2.9	4.4	3.5
통신기반시설	4.7	3.0	4.6	3.6
기술환경	4.0	2.9	3.9	3.3
경영코스트	2.5	2.8	2.4	3.0
정부경제정책	4.1	2.7	3.8	3.0
정치청렴도	3.9	2.2	3.6	2.7
종합평가	4.4	2.7	4.0	3.6

자료원 : 홍콩대학, A Survey on Multinational Companies in Asia Pacific

2. 중국진출 홍콩기업

2. 중국진출 홍콩기업

1) 홍콩의 중국투자 동향

홍콩은 중국 최대의 투자유치 대상지역이다. 중국통계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까지 중국이 유치한 총 375,876건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중 홍콩기업 투자는 195,667건으로 52% 비중을 차지했다. 2001년 상반기에만 계약기준으로 US$ 103억, 실행기준으로 US$ 80억을 투자해 중국의 FDI 유치실적의 30.12%와 37.26%를 차지했다.

홍콩의 중국투자의 주요 특징은 중국의 저임을 이용한 수출가공업 투자가 많다는 점이다. 홍콩의 제조업은 90% 이상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상태로,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홍콩의 투자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홍콩기업은 10만개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홍콩무역발전국 자료에 따르면, 157,300명의 홍콩인들이 중국 廣東省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제조업, 상업, 숙박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홍콩의 최대 투자대상지인 廣東省의 경우 홍콩기업의 고용규모는 이미 5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홍콩기업의 중국투자현황

(단위 : 건, US$ 억)

구 분	프로젝트(승인)		투자실적(계약)		투자실적(실행)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1999	5,902	34.89	133.29	32.33	163.63	40.58
2000	7,199	32.21	169.61	27.19	155.00	38.07
2001.1~6	3,644	30.39	103.61	30.12	80.32	37.26
총계	195,667	-	3,382.79	-	1,783.30	-

주 : 비중은 중국 전체 FDI 유치실적중 점유율
자료원 : 중국대외경제무역합작부

홍콩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1978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시행이후 주로 세가지 시기별로 특징지어진다. 첫 단계는 '80년대 중반까지 중국과 홍콩간 무역업 거래위주의 시기이고, 다음 단계는 '90년대 중반까지로 코스트 상승 압력에 직면한 홍콩기업들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완구 등 대부분

의 제조업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시킨 시기다. 마지막 단계는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로 제조업 이외에 부동산 및 서비스업 투자가 늘고 있는 시기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앞으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투자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진출 홍콩기업 설문조사

이번 설문조사는 홍콩기업들의 중국내 투자,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다루었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홍콩기업 1,3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113개 기업(회수율 8.4%)이 응답했다.

□ 투자 대상지역

홍콩기업의 중국투자가 여타 다국적기업과 다른 점은 중국의 개방과 함께 제일 먼저 진출했던 홍콩은 중국을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주로 활용한 반면, 최근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중국내 생산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이 많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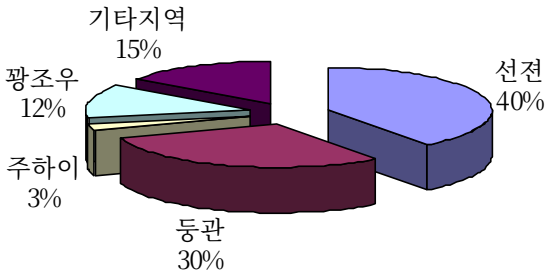
홍콩기업은 중국투자의 최대 고려요인으로 가격경쟁력 확보였고 이 때문에 홍콩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운전비용 절감 및 수출에 용이한 연해지역에 주로 투자해왔다.

특히, 홍콩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 임대료 수준 등으로 인해 대부분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홍콩 모기업은 여전히 오더관리, 자재구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에서 수출까지 중국내 생산공장은 홍콩 모기업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지리적으로 홍콩과 가까운 주강(珠江)삼각주 일대 광동성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사에서 대상기업의 65%가 深圳, 東莞, 珠海, 廣州 등 珠江삼각주 지역을 포함한 광동성 지역에 투자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北京, 天津, 吉林 등 華北지역과 上海, 浙江, 江蘇省 등 장강(長江)삼각주 지역이 각각 15%, 14%의 비율을 차지했고, 중국이 역점을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서부지역은 투자기업이 6%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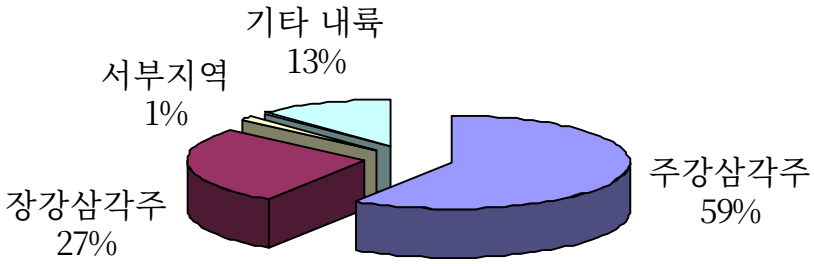
홍콩기업의 투자가 가장 많은 광동지역을 다시 도시별로 세부화해 보면, 深圳 경제특구가 40%, 東莞이 30%, 廣州가 12%로, 홍콩에서 육로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동성 홍콩기업 분포도



최근 들어 광동지역 생산코스트 증가로 광동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고는 있지만 투자지역 이전시 최우선 대상지역으로 여전히 광동지역을 꼽고 있어, 이 지역 투자가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이 역점을 두고 개발하려는 서부지역에 대한 홍콩기업의 투자는 현재 6% 수준으로 향후 투자지역 이전시 1%의 응답기업만 서부지역 투자를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했다.

투자지역 이전시 최적 후보지



서부대개발에 대한 홍콩기업의 시각

금년은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이 홍콩을 뜨겁게 달군 한해로 기록된다. 금년 5월 홍콩정부대표단의 서부시찰은 그 정점에 있었다. 다만 홍콩기업들의 서부대개발을 바라보는 시각은 냉정하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대한 잠재소비층은 아직 미성숙된 상태로 저임 노동력 활용을 겨냥한 서부진출은 수출형 제조업체 위주인 홍콩기업에게 적합하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한 내수시장 개방은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부지역보다 유효구매력이 높은 연해지역에 대한 공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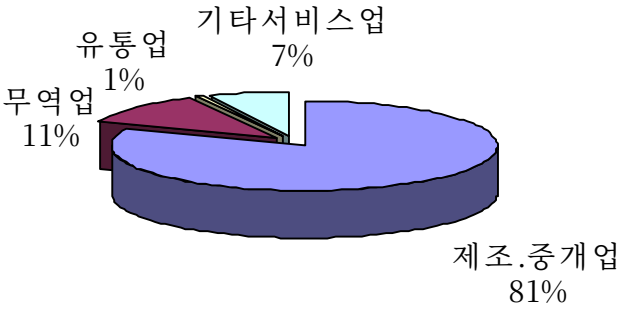
특히 미 테러사태와 중국의 WTO 가입결정은 서부지역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로 하여금 동부 연해지역으로 시선을 되돌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어, SOC, 자원개발, 중약개발 등 몇몇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답보상태에 있다.

□ 투자 업종

과거 20년간 홍콩의 중국투자의 대부분은 높은 기업 운전부담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기지 이전형 투자였고, 일반적인 제조, 무역업 이외의 서비스업종 투자는 중국의 투자제한으로 인해 활발하지 못했다.

설문조사 대상기업 1,339개사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총 8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무역업이 11%, 기타 서비스업이 7%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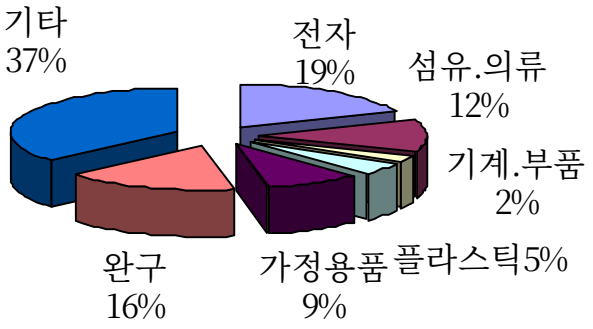
홍콩기업 업종별 분포도



전체투자에서 1%를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유통업은 WTO 가입 이후에도 초기 시장진입의 요구수준이 높아 중소형기업들의 진출여건은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며, 부동산 및 SOC 투자 역시 건당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홍콩기업들의 투자 밀집지역인 廣東省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19%) - 완구(16%) - 섬유·의류(12%)가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광동성내 제조업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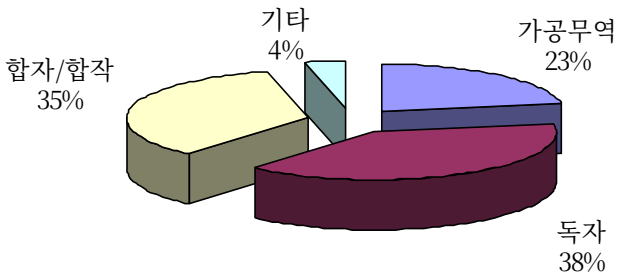


□ 투자 형태

홍콩기업은 심사가 빠르고 세무절차도 간단한 원자재수입 - 가공 - 해외수출 의 가공무역업이 많다. 특히, 예전에는 삼자기업 설립요건이 복잡했고, 내수시장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투자업체중 23% 가량이 여전히 가공무역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자기업중 임가공업을 겸하는 기업들의 응답이 제외된 수치로 실제 가공무역업 종사기업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게 홍콩 경제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독자기업과 합자기업 등 삼자기업 비중은 70%를 넘고 있고, 독자기업 선호도가 높은데 이는 중국 합작파트너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내수시장 진입 환경 자체도 예전보다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중국내 투자유형



홍콩은 중국투자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요인으로 인해 앞으로 기존 설비투자형 제조업에서 벗어나 부동산, 서비스, SOC 등 투자영역 다각화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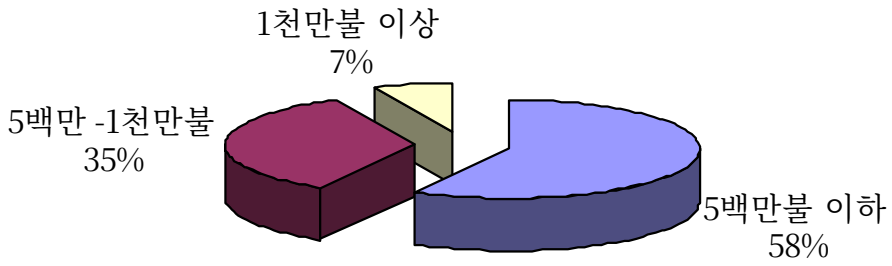
가공무역업체가 추가로 삼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업태를 내수시장 참여가 가능한 삼자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수출입권 부여 및 수출-내수비율 폐지 등 자율경영권 확대방침에 따라 홍콩기업들도 단순 임가공계약에 의한 생산활동에서 벗어나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법인체 형태의 기업 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투자 규모

응답기업 중 58%가 5백만불 이하였고 1천만불 이상을 초과하는 기업은 7%에 불과해, 일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이외에 홍콩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여전히 중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이후 서비스업 개방일정에 따른 유통업 등 서비스업 진출에는 투자하한선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예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개방에 따른 기대수준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정부가 설정한 초기 시장진입에 따른 요구수준 역시 높은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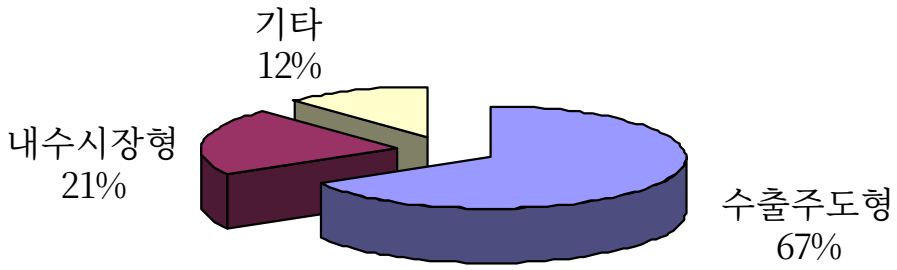
홍콩기업의 투자 규모



□ 수출-내수 비율

중국내 홍콩기업은 67%가 수출위주, 21%가 내수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내수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내수시장형 홍콩기업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 -내수 비율



홍콩무역발전국의 조사에서도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3천여 홍콩기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 전자업종이 42.2%가 내수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 내수비율이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홍콩기업의 내수 영업비율

업 종	내수영업영위	내수영업전무
전 자	42.2%	57.8%
보 석	14.5%	85.5%
시 계	13.3%	86.7%
의 류	12.8%	87.2%
완 구	8.6%	91.4%
평 균	27.5%	72.5%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홍콩기업이 내수 영업이 많지 않은 원인으로는 자금결제의 어려움, 정부정책의 투명도가 낮다는 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점들이 꼽혔다.

□ 투자시 최우선 고려요인

홍콩기업의 대중국투자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홍콩기업들은 저임 노동력, 임차수준 등을 꼽아 코스트 요인이 여전히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활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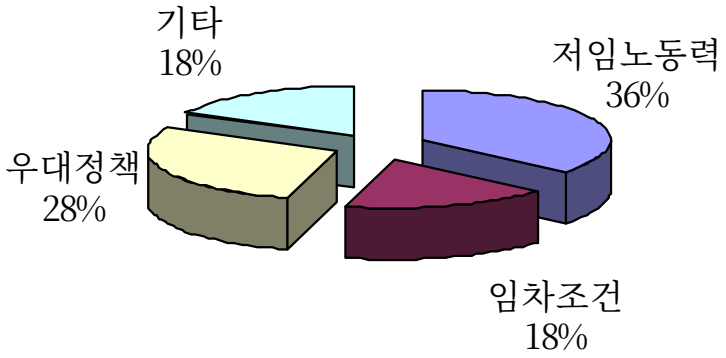
중국내 홍콩의 제조기업과 중개기업들은 대부분 외국바이어의 주문에 따른 수출용품을 제조, 판매하기 때문에 품질 경쟁과는 별도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주요 관심사였다. 1980년부터 홍콩내 기업운전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지자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필연적이었다.

이와는 달리 외국 다국적기업의 중국진출의 최대 요인은 시장 잠재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얼마전 A.T. Kearney社가 전세계 1,000여 대기업 고위관리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자신뢰도지수 조사에서는 86%의 조사대상자가 중국투자의 최우선 고려요인이 시장잠재력이라고 밝혔고 37%의 응답자만이 저임 노동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홍콩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을 임가공 생산기지로만 활용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중국투자의 고려요인으로 삼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가공무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외주문만 충족되면 개척이 힘든 내수시장을 애써 외면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과 외자기업법 수정과 소비수준 제고로 인해 방대한 내수시장이 유효 구매력을 가진 실체로 떠오르고 있어, 유효 소비층을 가장 많이 보유한 연해지역이 최근 운전 코스트 상승 등 기존 입지조건이 다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콩기업의 투자대상지로 선택되고 있다.

중국투자시 최우선 고려요인



물론 단순한 외국제품의 수입, 유통은 아직까지 높은 관세와 유통의 제한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중국내 외자기업 제품 내수비율 증가나 독자기업 설립을 통한 현지 판매망 구축을 통해 시장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향후 홍콩기업의 중국투자는 기존 가공무역형 투자개념에서 벗어나 내수기반 제조업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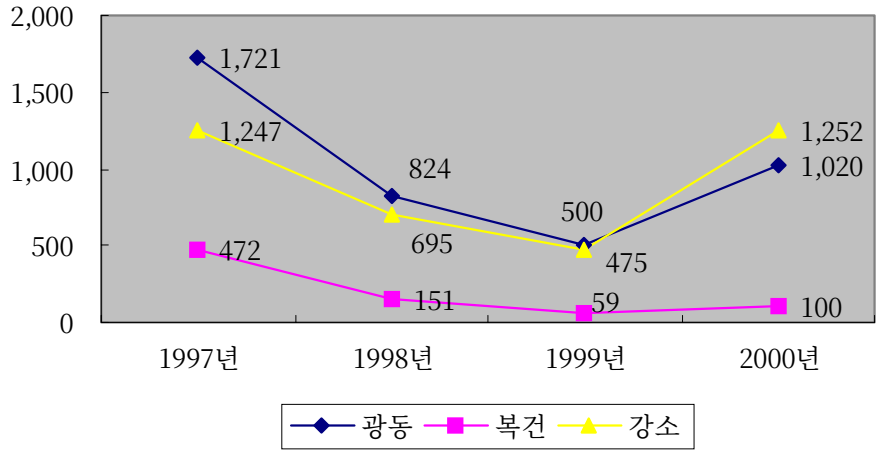
이밖에 홍콩기업의 중국투자의 고려요인으로는 외국인투자우대조치, 관련기업의 중국진출에 따른 동반진출, 중국의 IT인력 활용, 해외 수출쿼터 확보 등의 응답도 있었다.

현재 珠江삼각주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홍콩기업은 오전은 중국에서 생산관리업무를 마치고 오후에 홍콩으로 돌아와 기타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잇점 이외에 언어, 문화적 동질감 역시 관리의 용이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언어·문화적 동질감을 중국투자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힌 기업도 적지 않았다. 물론 이런 동질감은 해당지역 인사들과의 유대관계, 해당지역에 대한 인지도 등이 반영된 것이며, 廣東省 지역이 홍콩의 제일 투자대상지역이 된 또 하나의 요인이다. 반면 대만기업들은 최근 들어 초기 福建, 廣東에서 長江삼각주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대만기업의 長江삼각주 투자서부대개발에 대한 홍콩기업의 시각

'80년대초부터 '90년대중반까지 대만기업의 중국투자는 주로 가공무역 위주로 대상지역도 廣東省 지역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대만기업의 上海, 江蘇, 浙江省 등 華東지역에 대한 투자가 廣東보다 많아지고 있다. 투자업종도 기존 완구, 플라스틱, 의류업 이외에 기술집약형 산업 위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대만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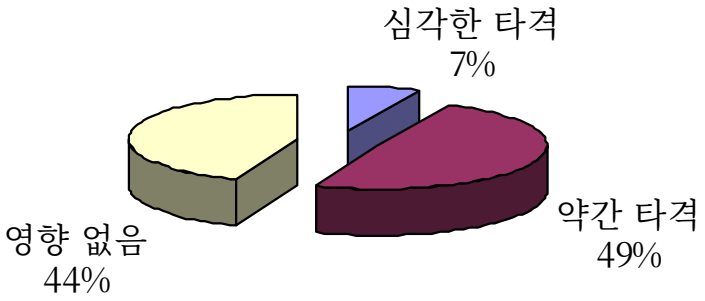
대만기업의 華東지역 투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통신, 반도체 등 자본집약적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연관성이 높은 지역으로의 동반이전이 늘고 있는 점과, 廣東에 비해 저렴한 경영코스트와 해당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廣東에 비해 부패정도나 치안상황이 덜하고 광동어가 아닌 표준어 구사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도 유인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 주변국 환율상승에 따른 영향

이번 조사에서 56%의 기업이 주변국 통화가치 절하가 자사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선진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미국 달러화의 약세와 이에 동반한 아시아 주요국 통화약세는 중국 위앤화의 상대적 강세를 가져와 가격경쟁력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변국 환율인상에 따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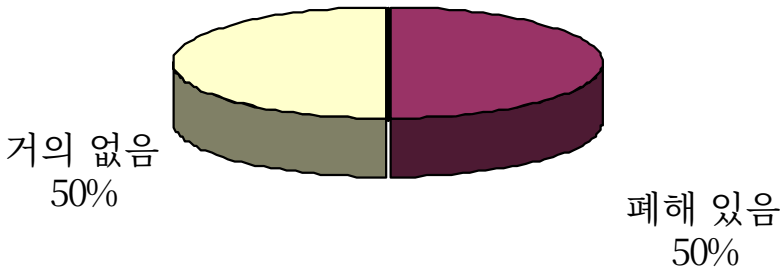


□ 가공무역관리제도

가공무역보증금제도는 중국이 1995년부터 시행했으나 1998년까지는 유명무실한 관리제도였다. 이 제도는 가공무역용 수입원자재를 구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수입관세를 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써 A-D등급별로 보증금 납입의무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당초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 명목으로 세액을 탈루하거나 밀수, 외화 밀반출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1999년 3월 26일 가공무역관리제도 강화방침을 밝히면서 부터로 가공무역 종사기업들의 운전자금 압박요인으로 부상했다. 1999년 수정된 가공무역관리제도의 핵심내용은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가공무역기업들에 대한 등급관리로, 가공무역기업들을 A,B,C,D단계로 분류해 A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치를 면제하고, B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예치를, C D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및 증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토록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가공무역용 원자재의 관리다. 즉, 수입 원자재를 금지, 제한, 허가품목으로 구별해 A등급기업을 제외하고 11개 수입제한품목 수입시에는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고 있다.

가공무역관리제도의 폐해



가공무역보증금제도에 대해 홍콩기업들은 기업 운전자금 압박을 이유로 아직까지 부정적인 견해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한 피해는 두가지로 우선 코스트상승을 들 수 있다. 코스트 상승은 금리부담, 운전자금 동결, 자금경책 등에서 유발된다. 보증금제도로 인한 코스트 부담은 고스란히 제품 단가에 반영돼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다시 대외적인 수요감소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최근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이 부진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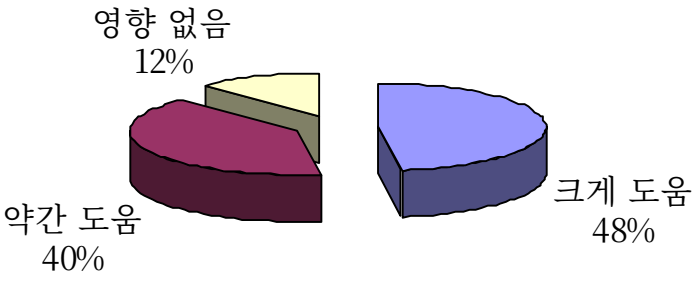
또 다른 영향으로는 기업 등급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엄격하다는데 있다. A등급 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 중국의 수출진흥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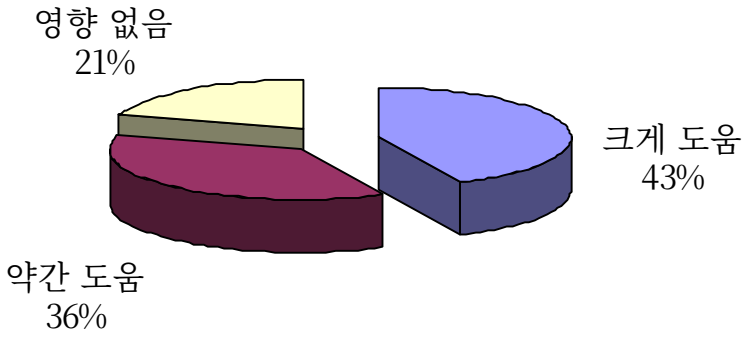
세계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던 중국이 최근 들어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주변국 환율인상 더 나아가 위앤화 평가절상 가능성 등은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금년 들어 수출입경영권 확대, 수출환급세액 담보부 대출제도 등 일련의 수출진흥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자기업의 일원으로서 홍콩기업들도 중국의 수출진흥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관세인하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내수시장 개방정책이 꼽혔다. 이 밖에 수출세액 환급 강화정책이나 신규 교체 수입설비재에 대한 면세조치를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고, 무분별한 非세수금 징수현상의 감소를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수입관세 인하, 내수시장 개방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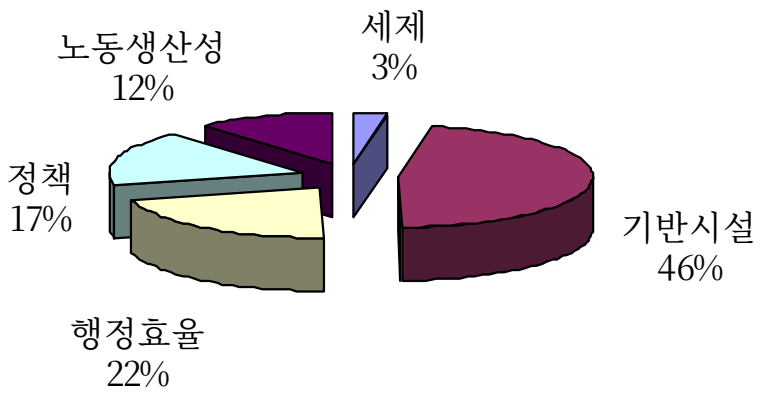
수출제세 환급 강화정책



□ 투자환경이 개선된 분야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최대 대상지역인 홍콩의 투자기업들은 현재 중국 투자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항목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4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는 홍콩기업의 최대 투자처인 廣東지역의 교통, 통신,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이 여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밖에 노동생산성 개선(12%)에 대해서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었고, 세제 개혁 분야의 후진성이 개선되어야할 항목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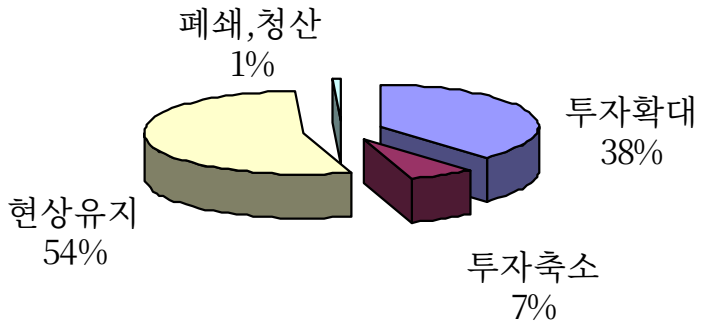
투자환경이 개선된 분야



□ 향후 투자계획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의 침체와 중국의 최근 수출경기 둔화 등 기업 체감경기가 과거 어느 때보다 저하되어 있는 현재,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홍콩기업들은 대체로 투자수준을 현상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년간 투자계획



절반 이상의 기업이 현재 투자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중국의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정책 투명도가 아직은 높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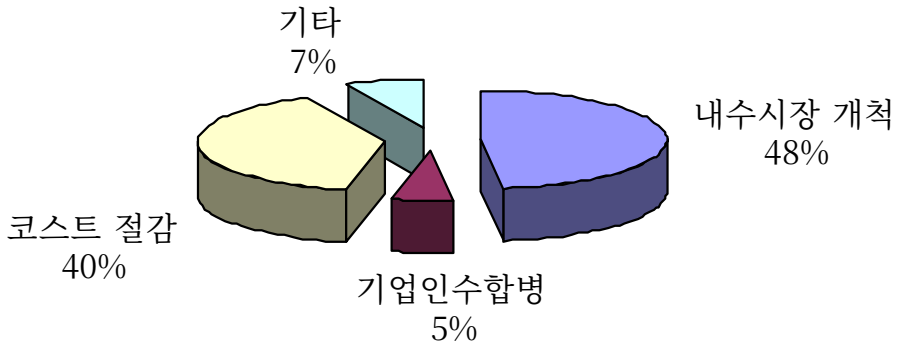
홍콩기업중 상당수가 임가공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관리제도 자체는 커다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수시장 개방 역시 초기단계로 시장 진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증액투자 계획을 가진 기업이 38%나 됐고 투자 철수계획을 가진 회사는 1%에 그쳐, 세계경기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WTO 가입 이후의 중국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중점 경영목표

중국내 홍콩기업들은 내수시장 개척을 향후 최우선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비용절감을 경영목표로 삼은 기업도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홍콩기업이 아직까지는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의 투자가 많은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다만 종전의 경우 비용절감이 최우선 경영목표이자 중국투자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던데 반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내수시장 개척을 가장 큰 비중으로 꼽고 있어 내수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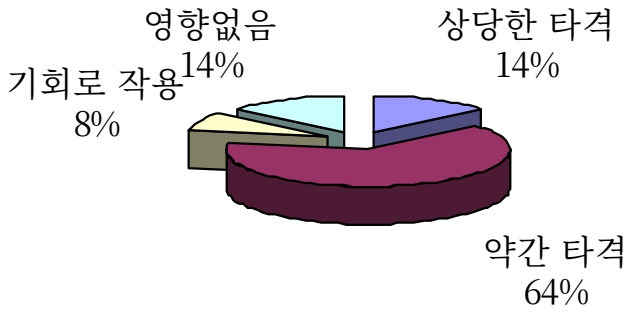
향후 1년간 주요 경영목표



기타 응답으로는 가공무역업체의 경우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비중을 높이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가공무역업체중 B, C 등급 기업의 경우 수입원자재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중국산 원자재 사용비중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 미국 9.11 테러사태의 영향

미국 9.11 테러사태의 영향



미국 9.11 테러사태에 대한 영향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다는 응답이 78%로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물론 현재의 수출주문 감소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불확실 요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온 결과로 보여진다. 특이한 점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응답이 8%나 나왔다는 점인데 이는 테러 특수에 따른 일부 의류, 구호용품 등 긴급수요에 적절히 대응한 업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3. 홍콩진출 중국기업

3. 홍콩진출 중국기업

1) 중국의 홍콩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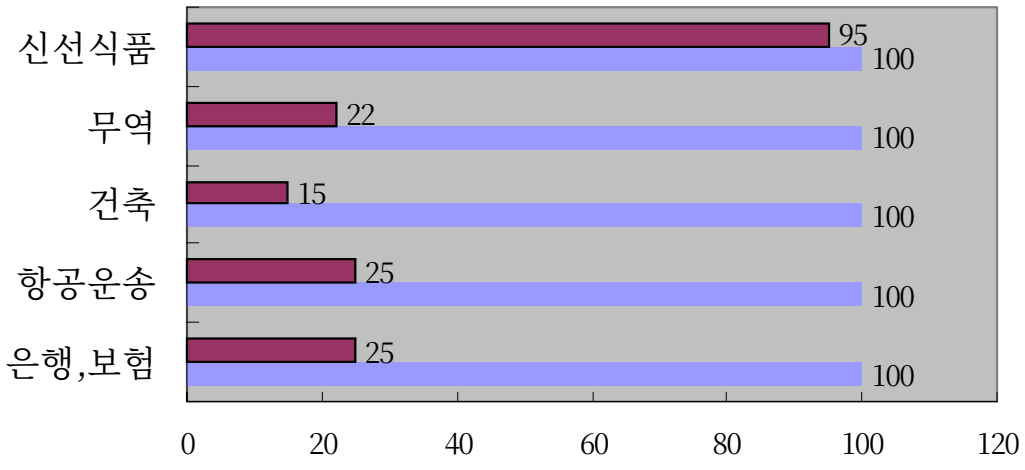
중국기업의 홍콩진출의 역사는 19세기말 淸朝의 招商局 설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 이전까지는 주로 금융, 해운, 관광업 등 몇몇 기업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국유기업의 대외교역 및 역외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홍콩은 그 지리적 인접성과 언어적 동질성으로 인해 중국기업의 대외창구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들은 각각 홍콩내에 창구 회사나 영업기구를 설립하기 시작했고, 일부 조건을 갖춘 기업들도 홍콩내 회사설립을 시작했다.

홍콩내 중국기업이란 홍콩에 등록해 홍콩의 법률과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기업으로 등록자본을 중국에서 조달한 기업으로 1) 中國銀行, 華潤그룹, 招商局國際 등 국제화된 대기업과 2) 중국 각 省 自治區, 국가기관이 설립한 기업이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중국에 설립되었으나 홍콩 증시에 상장한 국유기업도 포함한다.

1979년부터 1989까지 10년간 홍콩내 중국기업의 수는 급속히 늘어 1998년에 한때 2,000개사를 넘어섰고 자산총액도 US$ 2,256억에 달했으나 현재는 1,800여개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내 중국기업의 홍콩내 산업별 점유율



자료원 : 홍콩중국기업협회

홍콩내 중국기업은 홍콩의 높은 지대, 인건비 등으로 인해 대부분 생산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주로 서비스업 분야의 자산경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투자분야는 육상, 해상운송에서 창고, 통신, 전자, 의류, 식품, 호텔, 부동산업, 백화점 등으로 다양하다. 홍콩주민이 매일 필요로 하는 야채, 육류의 95% 이상은 중국계 기업이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사업 다각화도 주된 특징이다. 일례로 화룬(華潤)그룹은 종래의 무역업에서 현재는 부동산, 에너지, 컨테이너, 은행업 등으로 발전하고 있고, 중뤼(中旅)그룹도 관광업 이외에 발전소, 항공운송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한편, 2001년 11월말 현재 해외증시 상장 중국 국유기업 56개사중 51개사가 홍콩증시(HKEX)에 상장하고 있으며, 제 2증시(GEM; 상장사 54개)에도 3개사가 상장하는 등 중국 본토기업이 홍콩증시를 통해 모집한 자본총액은 130억불에 달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홍콩 증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전 제2증시 개장의 지연으로 인해 해외자본 모집을 희망하는 중국기업들이 홍콩증시 상장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우량기업들이 홍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데는 외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이점 이외에도 중국에서 접하지 못하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엄격한 기업관리기준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참여와 주주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 홍콩진출 중국기업 설문조사

이번 설문조사는 홍콩에 소재한 중국기업들의 투자유형, 홍콩활용의 목적과 같은 기본현황에서부터 최근 홍콩 페그제 폐지논란과 위앤화 환율전망 등을 위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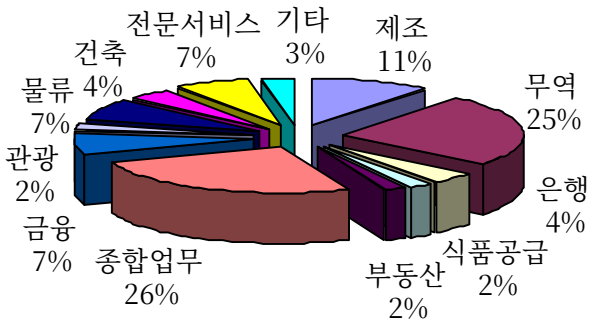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는 홍콩에 소재한 중국계 기업 1,800여개사 중 홍콩중국기업협회에 등록된 회원사 84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71개사(회수율 8.4%)가 응답했다.

□ 중국기업의 업종별 현황

홍콩은 높은 임대료, 물가수준 때문에 중국기업에게도 제조업의 메리트는 없는 지역이다. 조사 대상기업 844개사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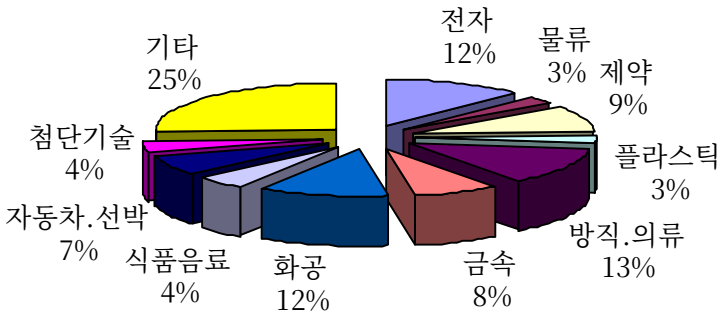
11%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89%는 금융, 물류, 컨설팅, 건축 등 전문서비스업이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중 종합적인 사업영역을 영위하고 있는 그룹사가 26%나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진출현황



중국에 진출한 홍콩기업중 상당수가 완구, 의류 등 경공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홍콩의 중국기업은 산업별 분포도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방직·의류가 13%, 전자·화공이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자동차·선박, 금속업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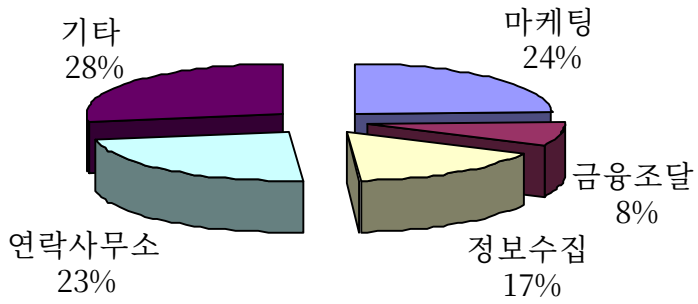
제조.무역업 세부현황



□ 홍콩활용의 유형

중국기업의 홍콩 활용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연락사무소, 마케팅 거점의 역할을 한다는 응답이 각각 24%, 정보수집 창구역할이 17%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조달의 역할은 8%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1,800여개나 되는 홍콩내 중국계기업중 상당수가 단순한 연락사무나 정보수집의 역할을 하거나 여타기업의 창구회사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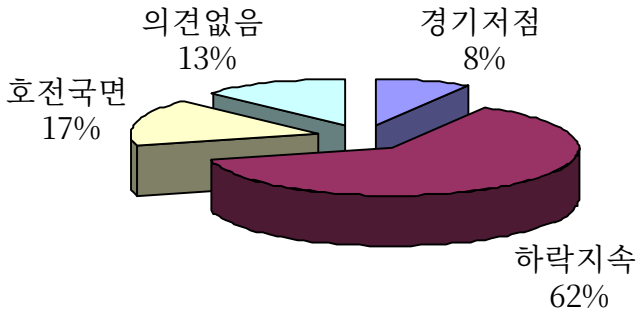
홍콩 활용의 유형



□ 홍콩의 최근 경기상태

홍콩의 경기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다. 경기가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62%나 되어 대외의존형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홍콩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했다.

홍콩의 최근 경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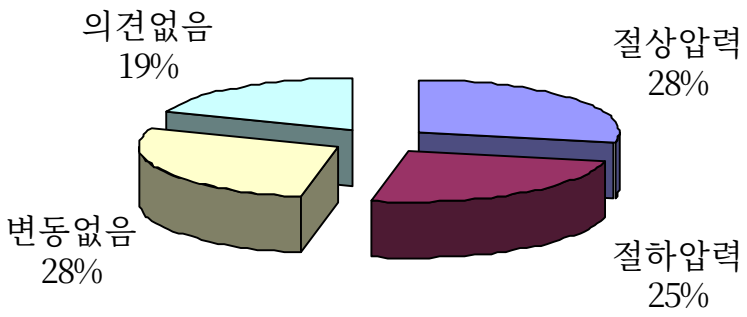


□ 위앤화 환율전망

홍콩내 중국기업들의 중국 위앤화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게 나왔다. 평가절하 요인이 있다는 시각이 25%, 반면 평가절상 압력이 있다는 시각이 28%로 비슷하게 나왔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대답도 28%였다. 이 같은 결과는 위앤화 추이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

중국은 2천억달러를 넘어선 외환보유고와 무역흑자 지속으로 외화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연이은 금리인하에 따른 외화 수신금리 인하 및 B주 증권시장 조정 지속으로 외화수요가 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앤화 환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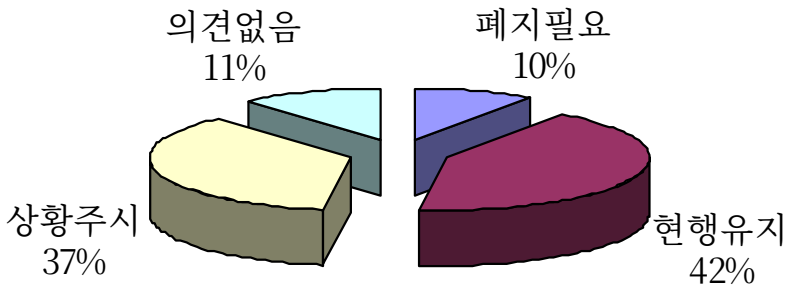
WTO 가입후 자본유입이 늘어 절상압력은 지속되겠지만 중국 역시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등 대외교역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평가절상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중국은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무역형 수출이 원자재수입 -> 상품수출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어 환율변동의 영향이 적다. 이에 따라 약간의 절상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환율요인에 의한 수출증감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환율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수출기업은 수출품목 고도화 노력이 요구되며, 중국진출기업은 저임에 기반한 가공무역형 투자형태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을 겨냥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 홍콩달러 페그제 폐지 필요성

홍콩달러 페그제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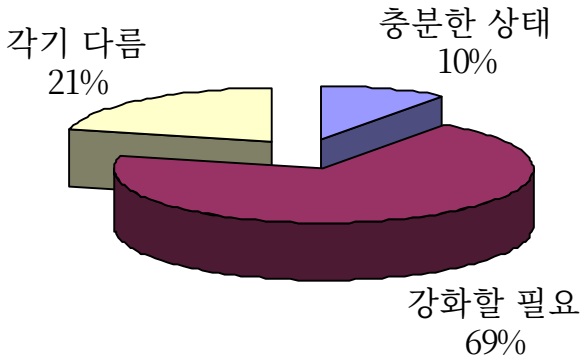


홍콩의 페그제(Peg System)에 대해서는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이 42%로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 10%를 훨씬 넘어섰다. 금년들어 경기둔화로 홍콩달러의 평가절하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의견 때문에 미국 달러와 연동된 홍콩달러 페그제 폐지의 견해가 나온바 있다.

홍콩은 지난 1983년부터 미달러당 7.8 홍콩달러로 환율을 연동시키는 페그제를 20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다.

□ 홍콩-중국간 경제일체화 상태

홍콩과 중국간 경제일체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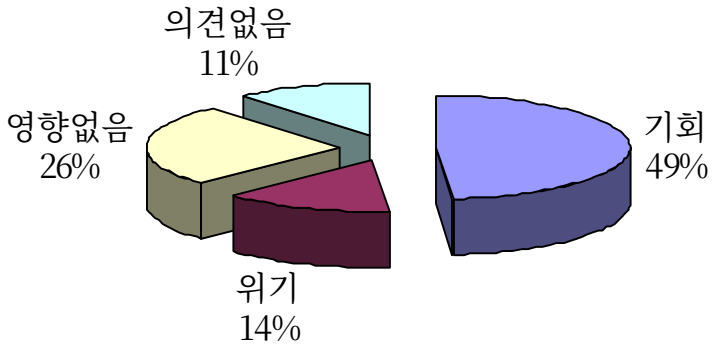


홍콩과 중국간 경제일체화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홍콩정부가 "홍콩-마카오-중국"을 연결하는 중화권 자유무역지대 설치 제안을 내놓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홍콩내 기업들은 역외 외국기업보다 먼저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 중국의 WTO 가입 영향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서는 48%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4% 가량은 오히려 WTO 가입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 본토지역 기업의 대외교류 증가와 국제경쟁력 제고가 홍콩에 진출한 중국기업에게는 경쟁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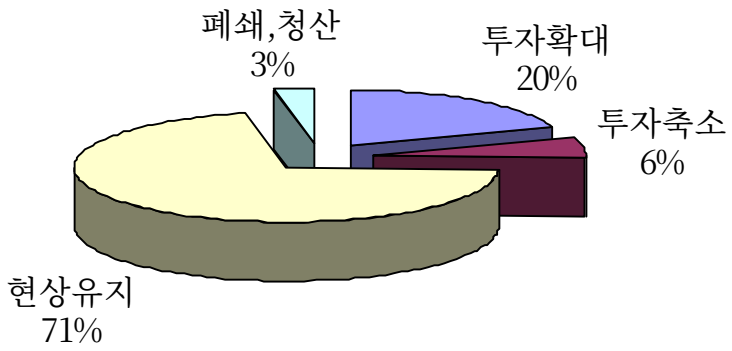
중국의 WTO 가입의 영향



□ 향후 1년간 신규투자 계획

홍콩내 중국계기업들은 향후 1년간 신규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의 투자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71%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사업확장의 가능성 때문에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응답보다는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게 나타났으며, 폐쇄나 청산을 계획중인 회사는 3%에 지나지 않아 미국 테러사태가 경영여건 악화를 가져오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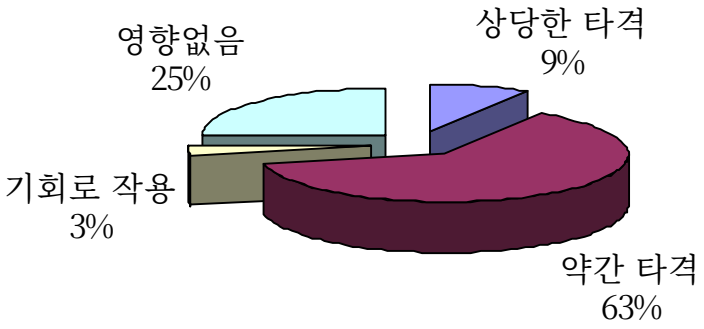
향후 1년간 투자계획



□ 미국 9.11사태의 영향

미국 9.11 테러사태에 대한 영향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홍콩기업과 마찬가지로 손실이 있다는 응답이 72%로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중국계기업은 홍콩내 제조업 종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이른바 테러특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9.11 테러사태의 영향



4. 한국기업에의 시사점

4. 한국기업에의 시사점

□ 홍콩기업 중국진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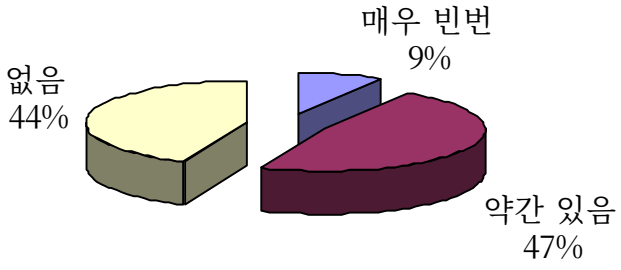
홍콩기업의 중국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珠江삼각주, 長江삼각주 등 연해지역 위주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공히 홍콩과 인접한 연해지역이 리스크 회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수준도 높아 아직까지는 최적의 사업활동지역이라는 판단이다.

다음으로는 임가공 투자형태에서 벗어나 독자기업 설립의 추세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수순으로 앞으로 홍콩기업의 투자패턴이 기존 가공무역형 투자에서 독자기업 방식으로 대폭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물론 서비스업 진출의 경우 아직까지 제한요인으로 인해 합자진출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독자기업을 통해 중국 소비패턴의 고급화, 다양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중국에서 저가 소비품을 진출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사업제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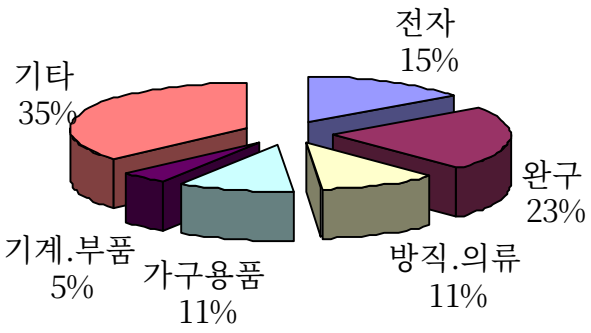
한국기업과의 사업현황



중국내 홍콩기업들은 대체로 한국기업과의 사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9%는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고, 46%가 얼마간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절반이 넘는 55%가 한국기업과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기업과 사업제휴를 원하는 분야로는 완구업이 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자 15%, 의류 및 가구용품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통신기기 등 홍콩기업의 진출이 미약한 분야는 제휴희망 기업을 찾을 수 없었다.

업종별 사업선호도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홍콩기업과의 협력관계는 중국시장 상황에 밝은 중개상을 통한 제품 수출을 비롯해, 홍콩 현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부품의 공급 등 수직적 분업관계 설정이 우선 목표가 될 수 있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홍콩기업의 대다수가 전자, 의류, 완구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홍콩자본과 한국기술이 결합된 합작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일례로 아국의 인터넷(통신)서비스, 환경관련기술 등은 홍콩 자체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홍콩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한 진출이 리스크 회피 및 비용분담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 홍콩기업들이 응답한 사업제휴 가능분야

o 자동차·부품

완성차시장은 연간 900억 위앤, A/S 및 부품시장은 연간 600억 위앤 규모로 1천개 이상의 홍콩기업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北京(西郊), 上海(東方), 武漢(萬國), 天津 등에 위치한 부품 구매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모터류, 변속기, 카에어컨, 카오디오, 필터류, 전자부품 등의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o 의류

연간 소비규모가 3조 3,400억 위앤에 달하며 1인당 소비지출도 도시지역은 482 위앤, 농촌지역은 92 위앤 규모로 관련 기업만 5만개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급제품과 중저가제품의 소비시장이 뚜렷이 구별되어 있으며, 홍콩기업은 중저가 브랜드상품의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o 시계

소매가격 5,000 위앤 이상의 고급시계는 연간 30만개 이상의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총수요는 6,000만개로 추정되며, 고급시계 판매가 전체 판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o 완구

시장규모는 100억 위앤 수준으로 매년 40%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14세 이하 아동층 3억명 중 주로 도시지역 거주 8천만명이 소비대상이다. 관련기업은 6천개사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西安, 廣州 등지의 전문 도매상가 이외에 최근에는 완구전문점, 백화점을 통한 유통이 늘고 있다.

o 가구용품

가구는 연간 870억 위앤의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주택 보유율 증가에 따라 매년 1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 중국 비즈니스

얼마전 한 외신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도 외자기업이 생산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내수판매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WTO 가입 이후에도 중국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유치(幼稚)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으로 전반적 시장진출의 기회는 확대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비교우위에 있으면서 시장접근이 가능한 분야를 권역별, 시장별로 세분해서 공략하는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연해지역에서 서부 내륙지역까지 점-선-면 확대발전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더 나아가 지금은 권역별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산업별 균형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까닭에 외국인

투자를 대하는 중국의 시각도 환영일색이었던 예전에 비해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의 黑猫白猫論 이 무색한 실정으로, 검은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쥐만 잡으면 된다는 데서 지금은 이왕이면 예쁜 고양이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식이다.

향후 중국진출은 생산코스트 요인 이외에도 투자국별, 산업별, 권역별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별적 시장진입이 중요하다. 세계 유수의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교우위가 뚜렷해야 한다.

사양산업의 경우, 당장 중국기업과 비교했을 때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기술집약적 산업이라면 중국내 외자기업들과의 경쟁우위는 확보돼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끝>